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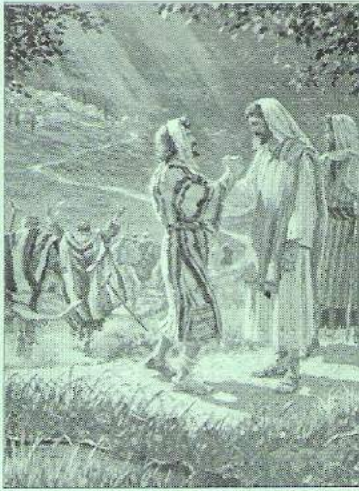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8주일

제36권 45호(다해) 2016년 10월 9일

[묵상]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 오지 않았단 말이냐

하늘나라에 갓 도착한 영혼,
베드로 성인은 영혼에게 하늘나라를 구경시켜주었다.
천사들로 가득 붐비는 거대한 작업실,
첫 번째 부서로 가서 "여기는 접수처라네,
하느님께 기도하는 온갖 청원을 이곳에서 접수한다네."
끔찍이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천사들이 사람들이 보내온 온갖 청원들을 분류하고 있었다.
두 번째 부서에 당도했다. "여기는 포장 및 발송처라네.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축복이 이곳에서 포장되어
지상의 청원 당사자들에게 발송되는 것이지."
이곳 역시 정신없이 분주 했다.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만큼 많은 축복이 포장되어 지상으로 배달되기 때문이다.
작업실 가장 후미진 구석에 마지막 부서가 있었고
둘은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천사 단 한명이 아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있었다.
"이곳은 확인처라네."
"그런데 어째서 이곳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서글픈 이야기야. 지상 사람들은 부탁한 축복을 받고 나서
확인서를 보내는 일이 거의 없거든."
"하느님의 축복을 어떻게 확인하는 건데요?"
"간단하다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지."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

저자 앤드류 마리아 | 역자 성찬성 | 성바오로출판사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매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출발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씩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매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베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2:3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금,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연)이용식 베드로, 이순자 레지나, 최병덕 바오로,
	(생)김형선 올리안나
주일 학생	(연)
	(생)
주일 낮 미사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최근석 마리아, 박희성 테레사 & 김계성 아가다, 반치우 안셀모 & 만순례 안나, 최병덕 바오로, 고준희 제임스, 송순석 미카엘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송봉규 요셉 & 송공량 마리아, (생)박정미 클라라, 손석 스테파노 & 손두화 스테파니아, 황윤재 베드로가정, 최동한, 김영훈 토마스 아퀴나스, 김영수 모테스토, 조해진 리디아 & 조혜운 테레사, 성호재 시몬, 이재숙 테레사 & 김정선 안나, 김임식 마누엘라수녀 & 오창근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하권(2Kings) 5,14-17

화답송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 - 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
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2 Timothy) 2,8-13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
의 뜻이다.◎

복음 루카 (Luke) 17,11-19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라.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87	187	187
봉헌	272	272	265
성체	298	298	286
파견	333	333	305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5. 교회와 민족주의 운동(1876~1945년)

5-3. 국권 회복 운동

그의 주장에 호응하여 전체 교회가 국채 보상 운동에 참여했으며, 당시 교회에서 간행하는 「경향신문」을 통해 이 결과가 속속 보도되었다. 「경향신문」과 교회를 통한 국채 보상 운동은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일제의 침략에 대한 무장 저항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1909년, 약 1년 동안 일제와 벌인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한국인이 5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이 무장 저항은 치열하였다. 교회는 이러한 무력 저항의 가치를 부정하였으나 무장 저항 운동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존재가 일부 확인되었다. 1907년 군대가 해산되고 전국에서 의병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소수의 신자들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경상도 일원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한 김상태(金尙台)는 일본군에게 잡히어 사살될 때까지 목주를 몸에 지녔고, 강원도 풍수원 성당에서는 의병들을 보호하는가 하면, 신자들이 의병에 투신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민족 운동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항기 반침략 운동에 적극 참여한 대표적 인물로는 안중근(安重根, 1879~1910년)을 들 수 있다. 황해도 지역의 저명한 천주교 가문 출신인 안중근은 빌렘(Wilhelm, 洪錫九, 1860~1938년)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직후 그를 도와 가톨릭 운동에 투신하여 교리교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국권이 침탈당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진남포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맡아 교육 운동에 투신하였다. 뮌헨 주교에게 대학교 창설을 요청하였으나, 이 요청이 거절된 직후 조선을 떠나 연해주 지역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무장 의병들을 이끌고 조선에 진공했지만 전투에 참패한 다음, 구사일생으로 블라디보스톡에 귀환할 수 있었다. 그 뒤 안중근은 만주의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응징한 뒤 ‘십자 성호를 긋고 대한 만세를 불렀다.’ 그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그의 행동에서 애국심과 신앙심의 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한일 합방이 강행된 후에도 일제의 침략에 반대하는 민족 운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합방 직후인 1910년 말에는 ‘안악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황해도 지방의 유력한 신자 안명근(安明根)이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또한 1911년에 발생한 ‘105인 사건’에도 이기당(李基唐)과 같은 천주교 신자가 관계되어 있었다. 이러한 신자들의 동향에 심정적으로 동조한 성직자나 선교사도 있었다. 강원도 풍수원 본당의 경우가 그러한 사례이다.

<계속>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루카17,19)

‘보리피리’의 시인 한하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발병한 나병으로 청춘의 모든 꿈을 접고 일생을 방랑하며 그 한을 시로 남기고 1975년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라는 시는 이런 절절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문둥이올시다, / 어머니가 문둥이올시다, / 나는 문둥이 새끼올시다, /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 하늘과 땅 사이에 / 꽃과 나비가 /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 목숨이 된 것이올시다,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서 /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어 / 되짚고 되짚어도 알 수는 없어 /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는 없어 / 어처구니없는 사람이올시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 성한 사람이올시다.”

이 시는 나병이라는 장애를 가진 시인이 세상의 편견과 멸시를 받고 “나도 사람이올시다!”라고 목메인 절규를 한 시입니다. 문둥이, 나병, 한센병....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으로서 최소의 기본권조차 박탈당하는 병이었습니다.

오늘 루카 복음에서 바로 이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큰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

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나?” 어쩌면 예수님의 물음은 우리 모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나병 환자처럼 더럽고 흉한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새로 태어난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책임을 묻거나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무조건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성사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아홉 명 중의 하나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이방인 나병 환자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루카 17,19)

◆ 홍인식 마티아 신부 / 일원동성당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데레사	남성첼 베네딕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김금자 데레사	전하현 마리아
재물봉헌자			PV 1,4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민상 요한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안네스
재물봉헌자			도동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10월 묵주기도 성월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묵주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미사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모집

성가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숭고한 기도입니다. 하느님께 올리는 합창의 기도에 나의 목소리도 합쳐서 올립니다. 새 단원을 초대합니다.

- 모집부문: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남성분들 파트 대환영합니다)
- 문의: 조정석 수산나(310)968-8171

◆ 성전 안에 음식물과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미사 또는 특강,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먹던 음식이나 음료수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방에서 친교 모임을 한 후에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를 건물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안 쓰레기통에 남겨져 있는 음료와 음식물 찌꺼기는 나쁜 냄새 뿐 만아니고 벌레와 파리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성당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세요.

◆UYKC 가톨릭 남가주 한인 청년 연합회 성경퀴즈대회

- 날짜: 10월 22일 토요일
- 장소: 성 프란치스코 성당
- 시간: 6시 합동미사 이후

◆ 무료독감 예방주사 안내

- 일시: 10월 16일(다음주일) 오전7시30분, 11시 미사 후
- 장소: 야외 친교장 또는 강당
- 수량이 한정 되어 있어 연장자 분들부터 접종해 드립니다.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9일: * 토남1.2반 :소고기무국(\$3)
* 주일학교 : 샌드위치 (10학년)
- 10월16일: * 토서1반 : 북어국(\$3)
* 주일학교 : 칠리 치즈 떡 (9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인모	강태홍	고천용	김상규	김상근
	김선제	김양금	김원모	김일선	김정엽	김정웅
	김정희	김종렬	남성철	남인구	민경근	박미경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박종열	방정복	성미선
	손 석	송영미	송재훈	안중연	양영관	양영자
	오일순	이근모	이민상	이인석	이재철	이형삼
	임 순	장영우	전정일	정경자	정남형	정병훈
	조소영	주대중	차정애	최기남	최수복	한장환
	합계:\$ 5,655					
주일미사헌금 :\$2,366						
주일학교 : \$1,180						

성전헌금	강숙경	강인모	강태홍	고천용	김선제	김양금
	김원모	김정엽	김정희	남성철	남인구	민경근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손 석	안중연
	양영관	양영자	이근모	이민상	이인석	이형삼
	임 순	장영우	정경자	정남형	주대중	최기남
	한장환					
	합계 : \$3,085					
	미션 헌금: \$919					
	9월 성물판매 이익금: \$344					

감사헌금 : \$300(조소영, 익명)					
-----------------------	--	--	--	--	--

남가주 소식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주관 2016 성장 세미나

- 일시 : 10월 28일(금) 오후 4시-30일(주일)오후 5시2박3일
- 장소: 아씨시피정센터(Poverello of Assisi Retreat H.)
1519Woodworth St. San Fernando, CA 91340
(818)365-1071
- 강사 : 김태광 아우구스티노(팔로티회)
- 참가비 : \$100
- 참가자격 : 전신자
- 준비물 : 성경,묵주,필기도구, 세면도구,미사봉헌금
- 문의 : 각본당 기도회장 및
봉사회 교육부장(714)345-4791
- 주관: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 (K.C.R.M.) (714) 343-4771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합니다.-South Bay

Torrance 에 위치한 Paramount Tariff Services, Inc. 입니다.
함께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Operations Assistant(Entry-level) with management opportunity!

자격 요건 :

- 한국어와 영어필수
- 시민/영주권자
- 근무시간 : 월~금요일 8시~5시 풀타임
- 연락처 :support@paramounttariff.com

◆제 35기 성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

- 강의 : 2016년 10월9일(주일) 낮 1시~5시
10일(월)저녁 6시~10시 중 택일
- 교육방법 : 첫날 3시간강의, 1시간실습
첫 교육후 10회실습
- 교육비 : \$200(당일 지불)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CA 90007
- 문의 : 성당사무실 (323) 731-4433

◆KCBC 미주 카톨릭방송 설립 20주년 찬양의 밤

- 일시 : 2016년 10월 28일(금) 저녁7시
 - 장소: 성 토마스 성당 (St. Thomas Korean Catholic Center)
 - 문의전화: 213 256 5708 / 카카오톡 아이디: kcbcus
- *** KCBC 미주 가톨릭에 새로운 엔진너어로 봉사해주실
분과 사무일을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
- 문의 :PD신은정 베로니카 (231)256-5708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신현화 헬레나 10/5 (수)12시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장수영패트릭 10/15(토)오후6시30분성당강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10/21(금)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김충섭 마틴 10/8(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홍광선 요셉 10/8(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방미숙 마리아 10/18(화)오전10시30분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남구역 모임 10/30(일)오후12시30분(공원)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남구역 모임 10/30(일)오후12시30분(공원)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남구역 모임 10/30(일)오후12시30분(공원)
토런스 북 정병욱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권 세실리아 10/17(월)오후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숙자 수산나 10/15(토) 오후6시30분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10/7(금)오후7시 성당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윤성진 안드레아 10/15(토) 오후6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장원철 안드레아 10/7(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테스 617-3568	이귀란 아테스 10/11(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제 단체 모임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	--

하느님을 만나는 거리

[이게 궁금했어요]

얼마 전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를 봤습니다. 조선 말기 지리학자로 유명한 '고산자, 김정호'의 삶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백성들의 편익을 위한 지도를 만들려는 김정호와 막 권력을 잡은 흥선대원군의 야심, 세도를 온존 시키려는 안동 김씨의 욕심 등이 충돌하는 것을 스토리 텔링의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맘에는 김정호의 딸, '순실이 이야기'가 콕 와 박혔습니다. 순실이는 지도에 미쳐 가족도 잘 돌보지 않는 고산자의 외동딸입니다. 아버지의 돌봄이 없었지만 순실이는 참 맑고 발랄한 처자로 컸습니다.

그런데 순실이는 '천주쟁이'였습니다. 아마 '천주'께서 그를 돌보시어 그렇게 반듯이, 명랑하게 컸을 듯 했습니다. 순실이는 병인박해(1866년, 고종 3년)때 잡혀가 모진 고문을 받다 그만 순교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실이의 죽음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비의 보살핌도 없이 홀로 큰 여자아이가 '천주'를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믿음,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조선의 가톨릭 전래는 순실이의 시대로부터 대략 260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학자인 이수광이 임진왜란 후 1590년대 말쯤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실의'란 책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 1631년 명나라 사신으로 갔던 정두원이란 사람이 천주교 서적 등을 갖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책', '학문'으로 조선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784년 '이승훈'이란 27살의 청년이 청나라 수도 북경의 북성당에서 한국인 최초로 영세를 받았습니다. '페드로'가 본명이었습니다. '학문', '이론'이었던 가톨릭이 '신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후 성리학, 유교 사회였던 조선의 사회·권력체제와 갈등을 빚으면서 신해(1791년, 정조15년), 신유(1801년, 순조 1년), 기해(1839년, 헌종 5년), 병인(1866년, 고종 3년) 등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 때마다 100~8,000여 명의 신자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병인 때에 가장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갈수록 신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옛된 '순실이'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학문이 먼 거리에서 하느님을 보는 것이라면, 이승훈의 영세는 하느님께 더 다가간 것이 아닐까요? 순실이는 그보다 더 가까워서 하느님을 만났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야콥이 동틀 때까지 하느님과 씨름을 했던 것(창세 32, 23~33 참조)처럼... 저는 얼마큼의 거리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독서하러 나갈 때, 왜 제대에 인사를 하는지요?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감실을 향해 절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제대는 제사장이고 제물이며 살아 있는 돌(1베드 2,4 참조)입니다. 나아가 모퉁잇 돌(에페 2,20 참조)이라 하였지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미사가 거행되는 제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재현되는 갈바리아 산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정갈한 두 겹의 흰 보를 덮어 제대와 제물의 순결을 기리고, 성체와 성혈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표하고 있는데 흰 보는 주님의 시신을 염했던 포를 상징합니다. 이렇듯, 제대는 하느님의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성찬을 거행하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밀떡이 성체화되는 신비가 이루어지는 곳, 그 성체를 받아 모신 신앙인이 모두 하나인 거룩한 교회로 형성되는 은혜를 이루시는 성심의 현장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세상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모여서 파스카의 신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체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곳이 제대인 것이지요. 그로부터 일차와 형제애의 원천, 기도와 감사의 중심이 이루어지기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기쁨의 식탁이며 친교와 평화의 장소입니다. 제대는 구원의 표지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에 성당 건축의 중심점이자 미사의 중심 장소입니다. 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더없이 귀한 자리이기에 제대를 향해 절을 해야 옳습니다.

◆ 가톨릭 부산 주보 / 소곤소곤

[교리 상식]

성인의 통공이란 무엇인가요?

☞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통공(通功)이란,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 천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 받고 있는 이들이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공의 신비는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속죄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천국에 있는 성인들을 공경하며 우리도 그들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좌절을 극복한 마르코

마르코 복음서의 저자인 마르코는 베드로 사도가 아들과 같이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마르코는 열심한 믿음을 지녔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베드로 사도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통역사로 선교의 일선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청중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르코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관해 자연스럽게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마르코 복음서였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코16,20

마르코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배 모임의 장소로 자신의 집을 기꺼이 봉헌할 정도로 신심이 깊었습니다. 마르코의 집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신자들이 함께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헤로데에 의해 감옥에 붙잡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해서 제일 먼저 찾은 집도 바로 마르코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했으며, 마르코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12,6-19

마르코는 유명한 바르나바 사도와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바오로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바오로는 바르나바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고을을 찾아가자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바르나바는 마르코도 같이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함께 일하려 다니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사도 13,13) 둘은 크게 싸웁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15,36-41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선교하러 떠날 때 사도 바오로는 기대가 컸던 마르코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바오로 일행은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리아의 페르게로 가고, 마르코는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페르게에서 시작되는 전도여행 앞에는 홍수 등 자연적인 재해, 유대인의 박해, 풍토병, 강도의 위험 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어린 마르코는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서 깊은 좌절감에 빠졌지만 얼마 후 마르코는 낙담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의 복음 전파자로 활동했고, 베드로 사도의 통역을 맡아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대교회에서 전승을 모아 마르코 복음서를 저술하여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이 격해져서 서로 갈라졌다. 바르나바는 ()를 데리고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사도 15,39)

나와 함께 간혀 있는 아리스타르코스, 그리고 바르나바의 사촌 ()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지시를 받았으니, 그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 (골로 4,10)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성인말씀

주님께서 네게 주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말라.
남을 사랑하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 -

두껍아 두껍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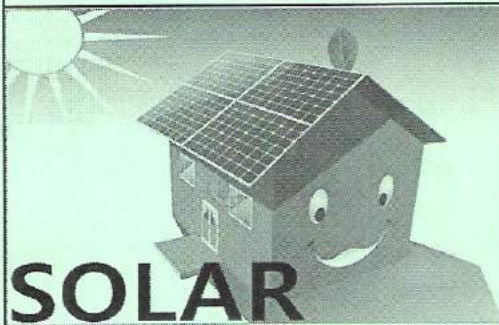
옴두꺼비는 알을 갖게 되면
잡아 먹히려고 독사를 찾아 길을 떠난대요.
잡아 먹힌 후 자신의 독으로 뱀까지 죽게 한다지요.
그러면 옴두꺼비 뱃속의 알들이
엄마 두꺼비와 독사를 먹으면서 튼튼하게 자란대요.
그렇게 자신의 현 집을 먹이로
자식인 새집을 짓는다고 해요.
너무 높은 엄마를 볼 때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게
어디서 온 건지, 눈물겹습니디.
-이영 아네스-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422 LA, CA 90006
☎(213)480-091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모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윤 철 아오스딩 310-321-860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용자 / 재용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갱)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오 겐바-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상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주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스전자

냉장고, 세탁기,TV,가전제품

TEL: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